인천시, 리모델링 쉬운 공동주택 건축 촉진

시 건축위 평가 소위원회…건축물 용적률 등 제한 완화
재건축 사회적 비용 절감·평가 절차 등 단축 효과

인천시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해 재건축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평가 절차 및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 건축위원회에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이하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는 쉽게 고칠 수 있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아파트 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시 건축위원회 평가를 받은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용적률, 높이 등 건축제한을 완화해 준다.

건축주들은 리모델링이 쉬운 아파트의 건축계획을 심의받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물인지를 시 건축위원회에 우선 평가받고, 평가를 통과한 후 용적률, 높이 등 건축제한이 완화된 건축계획을 다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받아야 한다. 건축위원회를 두 번 거쳐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시 건축위원회가 월 1회 정도 개최되기 때문에, 2번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이다. 심의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건축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시 건축위원회에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매회 약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건축위원회와는 달리, 평가의 주항목인 계획, 구조, 설비, 시공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 총 7인 이내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안건이 접수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소위원회 평가를 통과하면, 건축위원회에서는 용적률, 높이 등이 완화된 건축계획의 심의만 받으면 된다.

때문에 평가부터 건축심의까지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던 것이, 약 1개월 정도면 가능해져 획기적으로 기간이 단축된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 기간이 단축됨은 물론,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이 촉진되고 시민 편익이 증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bo.com

강화군, 건설기획단 활동 성공적 마무리

9억 예산절감·선후배 한 팀 업무노하우 등 공유 효과

인천 강화군은 2023년도 사업에 대한 조기 발주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운영해 온 건설기획단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일 부터 2월 3일까지 운영한 건설기획단은 도로과장을 단장으로 시설직 공무원 20명이 참여했으며, 총 196건 약 96억 원의 사업에 대해 측량과 설계를 완료한 결과 약 9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얻었다.

측량 및 설계가 조기 완료됨에 따라 읍면 대부분의 사업이 해빙기와 동시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농번기 이전에 용·배수로 및 세천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농민들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설기획단은 예산절감 뿐 아니라 선후배 공무원이 한 팀을 이뤄 사업 측량 및 설계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서로의 업무 노하우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 1석2조의 효과도 있다. 이는 강화군 공무원의 직무능력향상으로 이어져 강화군 발전을 이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군 관계자는 "성공적인 건설기획단 운영으로 각종 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발 빠른 공사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도모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bo.com

강화군이 건설기획단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사진 : 인천 강화군 제공)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등 18건 처리

계양구의회, 21일까지 16일 간 임시회 개회
계양~강화 고속도로 풍무나들목 등 결의안 채택

인천 계양구의회는 6일부터 21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4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11건, 동의안 1건, 기타 안건 5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인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인천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춘자 의회운영위원장), 인천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인천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지수 의원), 인천시 계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덕제 자치도시위원장), 인천시 계양구 입학자 가방구입비 지원 조례안(문미혜 기획주민복지위원장) 등이 있다.

또한 계양구의회는 지난 6일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계양~강화 고속도로 풍무나들목 설치」 및 「서울지하철 9호선, 대장·홍대선~박촌역 연장」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전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계양~강화 고속도로 풍무나들목 설치 촉구안」은 지난 21년 6월 타당성 평가조사에서 통과했던 원안대로 계양과 강화 양방향으로 진출입이 가능한 풍무나들목 설치와 「서울지하철 9호선, 대장·홍대선~박촌역 연장 촉구안」은 서울 지하철 9호선과 대장·홍대선 철도 2개 노선을 박촌역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반영 및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박촌역 주변은 현재 계양동 일대 사업 추진 중인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로 4만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계양신도시 테크노밸리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교통 인프라와 연계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주민 철도 이용 편의성과 수혜 권역 확대 등을 감안하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조양희 의장은 "오늘 채택된 두 개의 결의안이 반영되면 그동안 고질적인 교통난 및 불균형한 지역개발로 불편을 겪은 구민들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bo.com

서울지하철 9호선, 대장·홍대선~박촌역 연장 촉구 결의안
일 시 : 2023. 02. 06(월) 장 소 : 계양구의회 1층 본회의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계양구의회가 서울지하철 9호선, 대장·홍대선~박촌역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 : 인천 계양구의회 제공)

서구, 깨끗한 대기환경 만들기 박차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인천 서구가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해 올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악취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치 비용의 최대 90%, 7.2억 원까지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지난 4년간 총 240억 원을 투입해 노후 시설 279개를 교체·지원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주민이 직접 체감하는 환경개선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서구는 예산 42억 6천 6백만 원을 확보해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 구는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성 있는 환경개선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배출 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운영사업장 △주요 민원 발생 사업장 중 환경개선에 관심있는 사업장 △공동방지시설 운영사업장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지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3년간 사후 관리해 오염물질 배출을 모니터링, 효과를 분석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혜희 기자 kanghh0240@naver.com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사립유치원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 인천 인천시의회 제공)

지역 사립유치원 현장 목소리 청취

인천시의회 교육위, 현안 간담회
신학기 준비 점검·애로사항 등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인천지역 내 사립유치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충식 위원장 등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 신해숙 지회장 등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인천지회 회원,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유치원 현안 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다음 달 신학기 준비상황 점검과 함께 최근 치솟는 물가상승에 따른 사립유치원 운영의 어려움을 들으며 해결 방안을 같이 고민하는 취지로 이뤄졌다.

신충식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사립유치원 운영의 어려움이 많음에도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사립유치원 장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현장의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마련돼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인천 유아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인천에는 200여 개 사립유치원(1천200여 학급)이 운영 중이며, 공립유치원 대비 2배 정도 많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bo.com

옹진군, 농업용 소형 굴착기 교육

건설기계기관 등 이론·주행 등 실습 각 6시간

인천 옹진군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와 농기계 임대율을 높이기 위해 농업용 소형굴착기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다음달까지 농업인 15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교육은 △건설기계기관·도로통행·관련법규 등 이론교육 6시간과 △주행·운반·굴착·평탄작업, 일상점검 등 실습교육 6시간 등 총 1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이수증, 신분증, 사진 1매를 지참해 면허증 발급 신청을 하면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농업용 굴착기는 배수로 정비, 논·밭 개간 작업 등 영농 활용성이 높아 농가들의 관심이 높았지만 면허증이 없는 농업인은 장비를 사용할 수 없어 곤란을 겪어왔다.

옹진군농업기술센터는 2021년부터 소형굴착기 교육을 3회 실시하고 현재 농업인 61명의 농업인이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취득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농기계 사용을 위하여 다양한 농기계 교육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종수 기자 yds@hyundaibo.com

편집=장대형 기자 dk9